

법령의 철폐—신앙이 자유로운 시대로—

서구 제국들의 항의

1871년, 메이지 정부는 당시 외무성의 장관에 해당하는 이와쿠라 도모미를 전권대사로 임명하고, 서양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의 개정 협상이라는 특명을 부여하여 해외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쿠라는 방문하는 곳마다 우라카미 기리시탄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당시 소토메와 나가사키만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기리시탄 대규모 포박 행위 등에 대해 맹렬한 비난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1873년 2월 24일, 메이지 정부는 마침내 태정관 포고(메이지 신정부의 법령) 제 68호를 공포하였고, 이로써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금지하는 법령이 철폐되었습니다.

우라카미 신자와 신앙의 자유

같은 해 3월 14일에는 관계 각 현에 유배되었던 우라카미 기리시탄을 귀환시키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5년간의 유배 기간을 지나 1,930명이 우라카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889년에 공포된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제 28조에는 ‘일본 신민은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 의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포교 재개와 교회당의 건설

파리 외방 전교회의 선교사들이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천주교로 복귀한 신도들은 신앙이 계승되어 왔음을 증명하고자 각자가 오랫동안 잠복했던 취락에 교회당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지어진 교회당은 매우 간소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라카미와 소토메의 마르크 마리 드 로 신부와 고토 열도의 알베르트 펠루 신부 등 뛰어난 건축 설계 기술을 지녔던 선교사들에 의해 점점 더 화려해진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건축 기술을 소토메의가와하라 일족과 고토의 데쓰카와 요스케와 같은 일본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데쓰카와 요스케는 이후 평생에 걸쳐 30개가 넘는 교회당을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복지 사업의 시작

1874년 7월, 나가사키항 외곽의 이오지마 섬에서 이질이 발생하면서 소토메와 우라카미 일대까지 퍼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가게노오지마 섬에서 천연두가 발생했습니다. 마르크 마리 드 로 신부는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다비(유배)’에서 우라카미로 귀환한 이와나가 마키(십자회 창설자)를 비롯한 수많은 헌신적인 젊은 남녀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여성들이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면서 외국인 신부들의 지도하에 ‘여성의 방(훗날 우라카미 십자회)’ 등으로 불리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과거 ‘미제리코르디아(자비조)’를 떠올리게 하는 이 같은 활동은 소토메와 고토 열도, 히라도, 구로시마 섬 등으로 퍼져나갔고,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각지에서 보육과 의료 활동, 여성의 자립 등 여러 분야로 활동을 옮겨갔습니다.

그림 1

1873년, 메이지 정부는 1868년에 세운 법령을 철폐했다.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그림 2

우라카미 천주당은 다카타니 촌장 저택 터에 건설되었다.

(1937 년경)

1895 년, 피에르 프레노 신부의 지도하에 건축을 시작했다. 피에르 프레노 신부는 석상의 일부를 직접 조각했다고도 전해지며, 1925 년에 건물이 완공되기 훨씬 이전에 사망했다. 건물은 1945 년의 원자폭탄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그림 3

소토메에 마련된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 시설(지금의 구 시쓰 구조원)

(성모 마리아 수도회)